

막판 표심 잡아라... 민주 통합시장 정책 경쟁 '후끈'

민주 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

민형배, 관광객 유도 '3·5·7 체류형 전략' 제시 김영록, 세대 통합 위한 생활·문화 5대 약속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결선투표 이틀째인 13일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가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전남과 광주의 관광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통합하는 '3·5·7 체류형 관광 전략'을 발표했다.

직장인·가족 관광객은 3일, 실버 관광객은 5일, 외국인인은 7일 체류를 유도해 방문

객 수보다 체류시간과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숙박·식음·쇼핑·문화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 총량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광 운영 체계도 혁신한다. 전남광주 스마트 통합관광관제센터를 설치해 관광객의 흐름을 실시간 분석한다. 혼잡 지역은 분산시키고 비인기 지역은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광 동선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관광 투어 패스를 도입해 교통·숙박·관광·식음 결제를 통합하고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소비 락인' 전략도 추진한다. 공연·축제·굿즈 산업을 결합한 K(케이)-컬처 상권을 육성해 관광 소비가 골목상권까지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웰니스 관광 전략으로는 "광주의 의료 인프라와 전남의 자연 치유 자원을 결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광주에서 케어, 전남에서 회복하는' 1+2+1 체류형 모델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총 90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관광객 2만명 유치, 경제효과 360억원, 일자리 1200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MICE(마이스) 산업과 관광의 결합도

추진한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참가자를 전남의 해양치유·정원·리조트 관광으로 연계하는 광역 체류형 MICE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섬 관광은 글로벌 문화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신안·완도·진도·고흥·여수 등을 중심으로 섬 트리엔날레를 추진하고, 섬 간 이동과 숙박·식사를 통합한 아트 패스포트와 연속 탐방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를 하나의 여행지로 경험하게 하고 세계가 찾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후보는 이날 세대 통합을 위한 생활·문화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세대 간 연대와 어우러짐을 위해 김 후보가 내놓은 첫 번째 약속은 영산강과 섬

진강 국토중주 자전거길을 활용해 광주 도심에서 전남 주요 도시까지 달리는 전남광주 그린 루프(Green Loop) 완성이다.

광주 백운광장~송암산단 간 도심 25km 순환 자전거길을 완성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까지 15km 구간의 녹색 길을 신설한다.

나주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52.1km를 정비, 광주~혁신도시~영산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남도 물길 자전거길을 완성한다.

순천 순천만국가정원~동천하구습지 간 생태 자전거길도 섬진강 종주길과 연결한다. 매년 봄·가을은 시민이 자전거와 보행으로 함께 달리는 남도 그린 라이드(Green Ride) 축제를 열어 세대간 통합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전남광주 어디서든 30분 안에 파크골프

를 즐길 수 있게 2030년까지 명품 파크골프장 50여곳을 조성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야간 조명을 갖춘 공공 풋살장을 세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달리지 않고 걸으면서 즐기는 50세 이상 중장년·노인 전용 워킹 풋살 경기장도 건설한다.

광주 중외공원 생태예술놀이터와 같이 아이와 부모·어르신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생태예술문화 놀이터를 비롯, 순천만정원 같은 명품 정원을 전남광주 전역에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과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한 데 어우러져 함께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파전' 김한중·박노원·소영호 결선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3인 결선'으로 치러진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결과 김한중 후보와 소영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박노원 후보는 "경선 투표 직전 사실이 아닌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배포됐다"면서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남 박노원 후보가 신청한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김한중·박노원·소영호 후보의 3자 대결로 진행된다.

결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도 최다 득표자가 본 선거에 나서는 후보로 확정된다.

박노원 후보는 자신의 SNS에 "중앙당은 저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번 재심 인용은 반칙과 꼼수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꼭! 투표합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진보당, 복구청장 김주업·광산구청장 정희성 확정

"민주·진보 양날개로 호남 미래 열겠다"

진보당 광주 복구청장 후보에 김주업, 광산구청장 후보에 정희성 지방자치위원장이 각각 확정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 대결 구도가 본격화됐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모바일 당원 투표 결과 이같이 후보가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구는 김주업 후보와 민주당 신수정 후보, 광산구는 정희성 후보와 민주당 박병규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주업 후보는 이번 선거를 "호남에서 민주와 진보가 함께 작동하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선거"로 규정하며 복구 자치시 승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직접교부세 확대와 복지특별구역 지원 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예산 2조원 규모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으로는 20평형대 임대주택 1천호를 월 10만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광주역 일대 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희성 후보는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조를 겨냥해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 정치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역시 광산구 자치시 승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재정·행정 권한 확대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김주업 정희성

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요양원' 조성, 러너스테이션 설치, 농민수당 240만원 지급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놴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 중심 구도에 변화를 만들고 '제2당'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 여수시장 경선 연기... '당원 명부 유출' 논란 확산

김영규·서영학 공방... 중앙당 경선 방식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경선 일정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 논란으로 인해 전격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14~15일 예정됐던 여수시장 본경선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전남도당은 중앙당이 경선 방식 전반을 재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권리당원 약 141명의 이름

의 자격 박탈과 당 차원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학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부 유출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기된 의혹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형사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편 당내에서는 이미 수사 의뢰가 이뤄진 가운데, 중앙당의 경선 방식 재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조국 "민주당, 위헌 선거구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선거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출입 광주시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의 경우 광주는 12곳이 상한을 넘었고, 전남은 11곳이 하한에 미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구 비례 3대 1이 넘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규정을 왜 안 지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어필해 꼭 기면 민주주의의 원칙은 민주당의 정신, 지방선거를 단적으로 도입했던 김대중의 정신은



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 현장에 가들어보니 혁신당이 민주당 출신이나 타당 후보들 이삭줍기를 한다는 프레임은 씌우는데, 이삭을 줌은 것이 아니라 알곡을 쟁기는 것"이라며 "여수의 명칭항과 나주의 김덕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권력이 탄생하는데, 특별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혁신당이 들어가야 한다"

통합으로 광주 12곳 상한초과·전남 11곳 하한미달 국회광주시자단과 회견 "이삭줍기?... 알곡 모은 것"

물론 민주주의의 심장이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호남 정신과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기득권 보장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선거 후 소송이 진행돼 '수년 뒤 위헌 판결이 나오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대의에 맞는 행동인가 묻고 싶다. 이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하기 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위헌이 분명한 현행 선거구제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이산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호남 선거구에 '객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작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땅을 깊게 파고 새 흙을 넣듯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호남 유권자들이

통합으로 광주 12곳 상한초과·전남 11곳 하한미달 국회광주시자단과 회견 "이삭줍기?... 알곡 모은 것"

"민주당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혁신당이 분산투자를 해야 지금까지 발생한 해운 유착을 끊어내고 예방하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 공약도 밝혔다.

조 대표는 "서부권은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동부권은 행정통합을 통해 특례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산업과 일자리 세수가 달라지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여수, 순천, 광양 등의 동부권 인구를 다 합해도 특례시 승인 조건인 100만명 안 되지만, 50만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여수, 순천, 광양을 한 데 묶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

노소영, 선거사무실 개소... 본격 선거 행보

'노독캠프'... 봉선·진월동 등 맞춤형 공약도 발표

노소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원 예비후보(사진)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노 후보의 선거캠프 명칭은 '노독캠프'로, 주민의 대표 일꾼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신종혁 남구의회 의원, 최현숙·이미경 통합갑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그는 봉선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5대 핵심 공약도 발표했다.



봉선동에는 삼승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시간대별 인공지능(AI) 교통체계 도입을, 진월동에는 지하철 3단계 사업의 적극 추진과 청소년 공간 조성을 약속했다.

효덕동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송암동은 약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버스노선 개편, 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공약했다. 대촌동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과 고싸움놀이 축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